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출범

한국을 대표하는 CEO

매경이코노미 CEO 100명에 동문 4명 선정

이번달 3일(수) 서울배움터 제47회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조봉현(사범·영교 09) 정후보와 권소정(상경·국통 10) 부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약 4달 간 공백 상태였다. 이번 달 2일(화)~3일(수) 보궐 선거에서 총 재적인원 8,730명 중 30.42%인 2,6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가 성사됐다. 약 110여일 만에 서울배움터에 정식으로 총학생회가 들어선 것이다.

이번 선거에 단선으로 출마한 '외대스캔들' 선거운동본부의 조봉현·권소정 후보는 총 2481표를 득표해 93.51%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반대표는 151표(5.961%) △무효표는 21표(0.791%) △오차는 3표(0.002%)였다.

조봉현 정후보 당선인은 "입기가 끝날 때쯤엔 찬성하지 않은 7%의 학생들이 지지를 보내준 93%가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선거관리 및 총학생회를 대신해 수고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앞장서는 외대스캔들 총학생회 되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권소정 부후보 당선인은 "학내 모든 곳에 귀 기울이고, 처음 그 약속대로 당당함과 투명함과 소통으로 학생회의 기본을 다져가겠다"며 "끝까지 함께 해준 선거운동본부에 고맙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범(국제 11)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총학생회와 학교당국 간 갈등이 많았다"며 "앞으로 학교 측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며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우리학교를 같이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형근(통번역·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시점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양 배움터 총학생회가 조화롭게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을 위해 봉사해 나갔으면 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오른쪽부터 조봉현(사범·영교 09) 총학생회장 당선인, 권소정(상경·국통 10)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한편 외대스캔들 총학생회는 출범 후 첫 공식일정으로 이번 달 15일(월) 비상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총학생회 설립 보고 △회칙 개정 안건 건의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등을 상정했다. 총학생회 설립 보고를 들은

김영식(사회·정의 12)군은 "앞으로 외대스캔들 총학생회가 외대만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면에서 보궐선거결과 계속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사진 이은결 기자

우리학교 4명의 동문이 '2013 매경이코노미 100대 CEO'에 선정되었다. 그 주인공은 △김기범(정의 75) KDB대우증권 사장 △신은철(독일어 68) 한화생명 부회장 △윤용로(영어 74) KEB의환은행장 △조준희(중국 어 74) IBK기업은행장이다. 이 중 신은철 한화생명 부회장은 이번 해로 9회째를 맞는 매경이코노미 100대 CEO에서 8번 선정된 CEO가 됐다. 또한 윤용로 KEB의환은행장은 지금까지 3번,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의 경우 2번 선정되었다.

매경이코노미 100대 CEO는 우리나라의 CEO 중 산업계와 금융계를 망라해 혁신과 실적에서 성과를 보인 CEO 100명을 순위 없이 선정 한 것이다.

작년 취임해 KDB대우증권에서 외화채권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김기범 사장은 "국내 1등을 넘어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해외 거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싱가포르 △홍콩 △런던 △뉴욕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해외 고수의 사업으로 △영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파인싱(PK) △터키 투자은행(IB) 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진출도 꾀하고 있다.

신은철 한화생명 부회장은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힌 대한생명에 부사장으로 취임한 후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계획을 이룬 인물이다. 그는 먼저 대한생명이라는 사명을 한화생명으로 바꾸고 브랜드 가치의 통합을 이뤄냈다. 이후 한화생명을 자산 기준 2위 자리로 이끌고 대형 생보사로는 최초로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성공시



▲김기범



▲신은철



▲윤용로



▲조준희

켰다.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의 경우 국민MC 송혜의 광고 대사인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국민 모두가 거래하는 IBK기업은행"이란 문구를 만든 주인공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은행'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문구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작년에 기업은행은 개인고객 수 1100만명을 돌파했다.

"은행의 존립 근거는 고객이며 고객의 성공 지원을 통해 은행도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 윤용로 KEB의환은행장이 평소 애용하는 말이다. 그는 은행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직원들이 고객 성공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려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런 철학을 담은 그의 경영은 외환은행을 외국환 부문 1위로 이끌었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지면안내

- 3 글로벌배움터 정기총회 역대 최대 참여
- 4 도서관 환경미화원 신동진씨의 기부
- 7 광역화를 알아보자
- 8 실사판 논스톱, 셰어하우스
- 12 세계를 만나고 외대를 보다 박진 석좌교수




당신, 최대 관심은

▲하루에도 몇 번, 대한민국이 술렁인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남북한 긴장관계와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 제 3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했다는 이야기, 매일 전투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특보소식이 이어진다. 발사일이 오늘일 것이라는 보도와 북한의 태도와 움직임도 들려온다. 또 이번 달 2일(화)부터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발길이 막히고, 9일(화)부터는 조업이 완전 중단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긴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지는 정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측도 시시각각 변하곤 한다. 군사적으로는 지난 해 4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미사일 발사대까지 분석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탑재되는 미사일 종류 분석, 북한의 이동을 통한 전술 분석까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또 경제적으로는 코스닥 등 증권가의 소식이나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함에 따른 손실을 파악하고 있다. 또 11일(목)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

통령은 남북 간의 신뢰 형성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하며, 북한이 우리와 함께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화할 것을 밝혔다.

▲가장 중요한 여론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반응은 어떨까. 한국 갤럽은 지난 3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전국민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한국 갤럽은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기꺼이 싸우겠다'를 묻는 결과 80%가 '싸우겠다'고 답했다. 또 군 관계자가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도발해온 수준의 10배 이상 응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72%가 찬성해 반대(16%)를 압도했다. 전 연령대에서 다소 전쟁에 대한 강경한 반응을 원하는 목소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다. 또 전쟁이 나면 대부분의 국민 10명 중 8명은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고 답

했다. 안보에 대한 의식과 주관이 뚜렷한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결과와 반대로 요즘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에 대해 쓴 소리를 하는 목소리가 높다. 혹자는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도발보다 대기업의 채용공고 높은 검색이 순으로 랭크되는 현실을 말한다. 또 북한핵실험보다 대기업 화장품 세일소식이 더 크게 인터넷 상에서 회자되는 현실이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현실조차 젊은이들이 현재의 안보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그 누구보다 남북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애인을 누군가 내주길 바라고 있다. 때론 보도 되는 것에 대해 눈길을 주는 사람도 눈길을 주지 않는 자도 모두 국민으로서 남북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보다 때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희망과 큰 뜻에서의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

문나운 편집장

학내 브리핑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서울시에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민 또는 그 자녀'다. 또 지난 해 신청자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은 별도신청 없이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수)까지이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 확정 및 장학금 지급은 7월 15일(월) 이후로 예정되었다.

외대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여름방학 보내기

서울배움터 국제교류팀에서 다음 달 3일(금)까지 국제여름학기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제여름학기란 여름방학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계절학기 수업으로 한국인 재학생들도 참여 가능하다. 수업은 △KORE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LANGUAGES 네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제여름학기에 대해 권윤기 국제교류팀장은 "외국인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그들과 많은 교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 출범식 성황리 열려

"다시 힘껏 일어서 새 출발을 합니다" 이번 달 4일(목) 서울배움터 국제관 애경홀에서 우리학교 노동조합 제15대 집행부 출범식이 열렸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를 증진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는 △신승철 지부장 △김기일 수석지부장 △고중식 부지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출범식에 이어故 이호일 지부장,故 이기연 수석지부장 추도식도 거행했다. 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 학내단체 구성원과 장백기 전국대학노조위원장,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성원을 보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배움터, 월드컵 개최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시라도 놓칠새라 모두가 공에 집중하고 있다.



▲준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노어과 선수가 환호성을 지르며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 양재상 기자

지난 달 25일(월)부터 이번 달 5일(금)까지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는 축구부 동아리의 주최로 월드컵이 열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해 월드컵은 △각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군사교육단인 ROTC △국제학생회인 ISO 등 36개 팀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노어과와 중국어대가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최종 결과 2대1로 노어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동

우(서양어·노어 08) 노어과 축구팀 주장은 "1992년 이후 21년 만에 우승해 감격스럽다"며 "앞으로도 월드컵이라는 행사가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수상자로는 △MVP에 이상준(서양어·노어 08)군 △통산 득점왕에 김경환(중국·중국 05)군 △각 대회의 최우수 골

키퍼에게 주어지는 야신상에 김현우(서양어·노어 07)군이 각각 선정됐다. MVP로 선정된 이상준 군은 "지난 해 겨울부터 같이 모여 열심히 연습했는데 후배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돼 좋다"는 말과 함께 "생각지도 못하게 MVP로 선정돼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해 월드컵의 주체를 맡은 서세민(글공·경영 09) 축구부 주장은 "요즘들어 운동을 기피하는 학생들

이 많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았다"면서 아쉬운 점을 드러내고 학생들이 월드컵을 통해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랐다. 그는 덧붙여 "그래도 전체 학우들이 축구로 하나 돼 즐기는 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도 계속 월드컵을 준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재상 기자 86haveariceday@hufs.ac.kr

서울배움터 단대 학생회 빈 자리도 채워져

만평 김경보 8

32%만 강기는 서울총학생선거 거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에 이어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꺾쇠도 대부분 채워졌다. 지난 해 선거가 무산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였던 단대는 △동양어대학 △상경대학 △서양어대학 △영어대학 △일본어대학이다. 이 중 △서양어대학 △영어대학 △일본어대학은 지난 달 보궐선거를 통해 학생회장 선출이 완료됐으나 동양어대학과 상경대학은 후보자 부재로 이번 해 비대위 체제로 꾸러나갈 예정이다. 먼저 일본어대학은 지난 달 21일(목)~22일(금) 선거를 진행했으며 '몽땅' 선거운동본부의 오석진(일본·일본 12) 후보가 91.3%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오석진 일본어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은 "모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특히 일본어대학 학생들을 위한 자치공간 확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수민(일본·일본 13) 양은 "집행부원이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진행과정을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집행이 돼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양어대학은 지난 달 27일(수)~28일(목) 실시된 학생회장 선거결과 '스케치' 선거운동본부의 김우승(서양어·네덜란드어 09) 정 후보와 박수영(서양어·노어 12) 부 후보가 총 투표인원 중 87.53%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김우승 서양어

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은 "학생들의 마음을 수렴하고 가까이 다가서는 학생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이번 해 가장 큰 과제는 서양어대학 광역모집 준비로, 비슷한 상황의 다른 단대들과 연대해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준(서양어·독일어 12) 군은 "서양어대학 학생회실 완전개방과 신문고 공약이 기대된다"며 "다만 학생들에게 광역모집과 같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달 3일(수)~8일(월) 선거를 치른 영어대학은 'DoDream' 선거운동본부의 강유나(영어·영어 11) 후보가 85.4%의 찬성표를 얻어 당

선했다. 강유나 영어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은 "그동안 수고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에 고맙다"며 "다음 해부터 영어대학 단일과 체제로 변경돼 새로 바뀌는 커리큘럼에 맞춰 영어대학 학칙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당선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해 서울배움터 11개 단대 중 동양어대학과 상경대학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동양어대학의 경우 1년 동안 8개 학과 학생회장들이 교대로 비대위장을 맡게 된다. 또한 상경대학은 이자용(상경·경제 12) 경제학부 학생회장이 비대위장으로 선출돼 한 해를 이끌어나간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2013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

1. 전형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	2013. 5. 6(월) 14:00 ~ 5. 10(금) 22:00	www.uwayapply.com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해당일 24시간 작성 가능
서류 제출	2013. 5. 6(월) 14:00 ~ 5. 10(금) 22:00	대학원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대학원 건물 111호)	우편 제출의 경우 5. 10(금)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면접 전형	2013. 5. 25(토)	대학원건물 고사장	전공별 면접시간은 5.24(금)14:00 교육대학원홈페이지 입사뉴스에 공지예정
합격자 발표	2013. 6. 13(목) 14:00 예정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gse.hufs.ac.kr	
합격자 등록	2013. 6. 17(월)~6. 21(금) 예정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은행업무시간 내 인터넷뱅킹, 폰뱅킹 가능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 과정	모집 전공	모집인원
교육학석사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상담심리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컴퓨터교육 · 교육경영관리학 · 다문화교육(2012신설) · 어린이영어교육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000명

※ 교육경영관리학, 다문화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전공은 재교육 과정만 운영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 함

▷입학문의 : 대학원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TEL 02)2173-2419~2421 FAX 02)2173-3358
▷교 통 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글로벌배움터 1403명의 학생대표자 모여

이번 달 11일(목) 글로벌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상반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이번 정총은 1403명의 인원 참석으로 재적인원 10%가 넘어 정총을 진행했다. 이상엽 글로벌배움터 학생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총학생회 페이스북 행사 경품추첨 후 1부 정총, 2부 학과 공연과 경품 추첨으로 이어졌다. 이번 정총에 참가한 김인하이공자전 13양은 "재미있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축제 같은 분위기라 신났고 대학생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 진정한 대학답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주요 의결안건으로는 △학교 학생 자치활동(왕산제전) △11대 교육환경개선안 △글로벌배움터 2013년도 총학생회 회칙 결의가 있었다. 총학생회의 활동보고는 크게 △스쿨버스 증차 및 실태조사 △본·분교통폐합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촉구 △모현 상권 답합문제 지적했다. 이후 총학생회 상반기 활동 계획보고에 이어 의결안건이 진행됐다.

먼저 주요안건은 학교 학생자치활동



▲정기학생총회 당일, 추운 날씨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왕산제전)으로 현재 글로벌배움터에는 신분관 공사로 체전을 진행 할 운동장이 없다. 따라서 이번 왕산제전의 경우 외대 사거리 2km 내외에 위치한 모현 레스피

아를 대해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학내와 멀리 떨어진 관계로 교내서틀버스 노선을 레스피아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11대 교육환경개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국제스포츠레저학부 소속 변경 및 인문대학의 광역화모집 결

정 등을 계기로 한 △학생의 의사가 최우선시 되는 학교, 학생이 존중 받는 학교, 학생이 주인인 학교 △학생자치행사 및 수업권 보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옥상공간을 개방해 교내 흡연 시설 확보 및 현재 건물 입구로 지정된 흡연구역 이전 촉구 등이 있다.

1부의 마지막 순서인 기타 토의에서는 '학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문서 작성프로그램이 정식판이 아니라 불편했다'는 의견과 '어문관 컴퓨터실의 기기 3분의 1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수리를 요구했다. 이에 전형근(통번역·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정보지원처에 문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 전했다.

전형근 총학생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해 와 주신 모든 학우들께 감사하다"며 "한명 한명이 모두 학생 대표자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많은 인원으로 인준을 받아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 전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도학위, 개선이 필요할 때

(도서관학생위원회)

지난 달 도서관학생위원회가(이하 도학위) 도서관 사물함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의 노트북이 분실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분실사건은 지난해학기 도서관 사물함을 이용한 김경문(동양어·아랍어 06)군이 이번학기 사물함 재배정 및 철거 시행 기간 중 기한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아 도학위 측에서 일괄 철거 및 폐기하면서 일어났다. 김군은 "철거 기한 다음 날 사물함 물품을 찾으러 갔는데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며 "도학위 측에 문의했더니 책은 보관하고 있으나 노트북은 해당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오태웅(서양어·프랑스어 08) 서울배움터 도학위장은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 원활한 사물함 이용을 위해서는 강제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철거 후 보통일주일 정도 내용물을 보관해두고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에는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전자기기 같은 귀중품은 따로 보관을 한다며 "노트북 분실은 보관

중 불의의 도난사건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군은 도학위 측의 보관부주의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학위 측에서는 관련된 내부 회칙 또는 운영세칙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봉현(사범·영교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도학위는 내부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많다"며 "총학생회 차원에서 함께 운영 회칙 및 세칙을 제정하고 도학위장 선출 및 도학위원 모집의 투명성을 높여 명확한 지침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실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피해학생과 도학위 측에서 총학생회에 의견을 구하지 않아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도학위에 책임이 있다고 파악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하며 도학위에 배상능력이 없다면 총학생회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서울배움터 학생감동팀장 또한 "새로 구성된 총학생회와 협조해 향

후 분실사고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며 "도학위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와 함께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태웅 도학위장은 "그동안 종종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초부터 내부적으로 회칙을 만들어 총학에 안건을 올렸으나 전학대회 등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총학생회와 함께 도학위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학위는 최근 전용 SNS를 개설해 학생 의견 수렴을 하는 등 도서관 이용 시 학생들이 겪는 여러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도서관학생위원회

도서관 이용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총학생회 산하자치기구로 학기 초 사물함 배정 및 철거 작업, 열람실 사석화 방지 작업 등을 주관한다.

외대학생발전추진위원회, 앞으로의 방향은?

서울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 외발추 인선 정지 의결

그동안 말이 많았던 외대학생발전추진위원회(이하 외발추)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인가, 다시 개편될 것인가.

이번 달 8일(월) 제 47대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는 외발추의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우선 외발추 위원장의 인선을 중지하고 이후에 외발추의 향후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외발추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 중운위에서는 △외발추를 새로 개편하는 안 △대체 기구를 신설하는 안 △외발추를 폐지하는 안 등이 제시됐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다음학기에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외발추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조봉현(사범·영교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외발추는 과거에 재단의 비리 문제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운영상에 많은 차질

이 빚어졌고 이념적으로 편향했다는 비판을 받아 안건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해 외발추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를 공개모집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출된 위원장이 집행부를 독단적으로 해산하고, 장학금을 대리수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 뒤 외발추는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이번 해 총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운영됐다.

외발추장자의 인선이 정지됨에 따라 외발추가 기존에 수행하던 △등록금 심의위원회 자문 △학사제도 연구 △학칙 개정 연구 등의 업무는 총학생회가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조봉현 총학생회장은 "비록 이번에 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지만,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외발추의 집행부를 총학생회에 편입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최고를 꿈꾸는 자의 선택!

육군간부

2013년 육군

대학 軍장학생 모집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육군모집에 대한 지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혜 "합격시 전원 전학년 장학금" 지급

시작해 ~ 나만의 네버엔딩스토리!

Republic of Korea Army

지원자격

- 연령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남성
- 학력 : 4년제 대학 학군협약이 되어있는 1, 2, 3학년 진원자의 동의와 재정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자

지원서접수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육군 인사사령부)

접수기간 · 2013. 3. 18 ~ 5. 19

선발절차

- 1차 : 필기평가(국사과목 필기평가 포함), 서류전형
- 서류제출(육군 인사사령부)
- 2차(최종) : 대학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장학금 수혜 기간 추가 복무
- ROTC 입관 시 : 6년 4개월
- 학사장교 입관 시 : 7년

대우 및 특전

- 대학 4년 등록금 전액 지급(입학금 포함)
- ROTC(지원시) 및 학사장교로 임관
- 국내 민간 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문의처 및 모집안내

- 우리대학 학군단 : 02-2173-2595
- 육군 인사사령부 선발담당관 : 02-505-7144 / 042-550-7144
- 육군대표전화 : 1588-6953(육군으로 오심)
- www.goarmy.mil.kr(육군모집)

육군본부

www.goarmy.mil.kr(육군모집)

전국대표: 1588-6953

NAVER 7244 육군모집

도서관 환경미화원 신동진 선생님 어려운 학생위해 100만원 기부

“연탄 배달을 하면서 틈틈이 모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기부한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난 겨울방학 중, 서울배움터 도서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동진(62) 선생님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환갑 때 자녀들로부터 받은 축하금 중 일부를 기부한 것이었다.

어릴 적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성장하고 공부한 신씨는 평소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집안이 어려워 책도, 책가방도 없었다”며 “윗학년에게서 책을 물려받아 공부했고 보자기에 책을 싸서 학교를 다녔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신씨는 지난 해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려움 속에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한 튀니지 유학생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연이 계기가 돼 당초 봉사를 다니던 맹인교회에 기부하려던 돈을 학교에 기부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학교는 오바마 대통령이 온 자랑스러운 대학이기도 하다”며 “여기서 큰 꿈을 갖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대에 오기 전 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신씨는 55세로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해 6월부터 우리학교에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말년에 청소라도 할 수 있게 자리를 준 학교에 고맙다”며 “일 할 수 있다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을 깨끗이 해준다는 것이 참 즐겁다”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꼬박 인사를 하고 알아봐주는 것이 참 기쁘다”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했다. 현재 나사(NASA) 부국장에 재임 중인 신재원 박사를 사촌동생으로 두고 있는 신씨는 “자수성가한 훌륭한 사촌동생이 있다”며 “이러한 사람들처럼 외대 학생들도 더욱 큰 꿈을 갖고 세계로 뻗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씨는 ‘선비는 종이를 아끼고 농부는 집을 아낀다’는 옛말을 들며 평소 아껴 쓰는 습관을 강조했다. 도서관에



사진 이은결 기자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100만원을 기부한 신동진 선생님. 그가 기부한 장학금은 '6·25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버려진 새 것 같은 봉투, 공책들이 얼마나 귀하냐며 “저는 아주 어렵게 공부하고 컸지만 우리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하고 전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선배로부터 인생을 듣다

문국현 동문, 우리학교에서 특강 진행

“여러분 모두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달 3일(수), 영어대학은 문국현(영 어 68 현 뉴 캐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이사를 초청해 동문특강을 진행했다. 문국현 동문은 우리학교에 입학해 영어와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유한컴벌리의 사장직과 제18대 국회의원직을 지냈다.

문국현 동문은 이날 ‘job making economy: people-centered, responsible, new competitiveness’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강연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 경험을 쌓아나간다면 개인이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국현 동문은 “중견기업에 들어가 위기와 그 극복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대기업만을 고집하기보다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전했다.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미래를 자신의 시각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승영(영 어·영통 13군)은 “평소에 진로는 대기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길도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권덕중(영 어·영통 07)군도 “사회 주류에서 한 발짝 물러나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대학은 재학생들이 진로를 설계



사진 양재상 기자

▲이번 달 3일(수) 열린 동문특강에서 문국현 동문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문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운 영어대학 학과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은 전공과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동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동문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동문들에게도 학교에 대한 애정을 심어줄 수 있으면 한다”며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학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7+1파견학생 신청 후 취소했다가 투표권 상실한 재학생들

지난 2일(수) 서울배움터 이은주(동양 어·몽골어 11)양은 총학생회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려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거인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알아볼테니 다시 오라”고 했다. 다음날, 이은주 양은 다시 투표장을 찾았으나 여전히 명단에 ‘이은주’라는 이름이 없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는 학생감동팀에서 재학생 명단을 받아 선거인명단을 만들었고, 그 명단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는 말을 전했다.

이은주 양이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이번 학기 7+1파견학생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학생감동팀에 받은 재학생명단에 이은주 양은 ‘7+1파견 상태’로 표시돼 있었던 것이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학생은 △휴학생 △졸업대기자 △복수전공자를 제외한 서울배움터 재학생이다. 여기에 이번 선관위는 ‘회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재량에 맡긴다’는 회칙에 따라 7+1파견학생과 교환학생도

유권자에서 제외했다. “이 학생들의 경우 외국에 나가있어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표는 사표(死票)가 돼버린다. 이런 사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해 빠지로 결정했다”는 것이 부선거위장 이민영(법·법 08)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은주 양은 “7+1파견학생을 신청했었지만 사정이 생겨 이번 해 2월 초에 취소했다”고 말했다. 재학생 명단을 넘겨준 학생감동팀에서는 “우리는 지난 달 29일(금) 7+1명단과 교환학생 명단을 국제교류팀에서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이은주 양이 파견학생을 취소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아직 7+1파견학생으로 인식돼 있었던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은주 양과 같은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학생이 한 명 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말이다. 이에 김재우 국제교류팀 7+1파견 담당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재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자유전공학부, L&D학부로 소속 변경 수업권 보장문제는 과제로 남아

학교 측과 자유전공학부(이하 자전) 학생대표가 이번 달 3일(수) 자전 재학생의 소속을 모두 LD학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자전 재학생들의 커리큘럼은 LD학부 신입생들의 커리큘럼과 별개로 모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김학태 우리학교 기획조정처장은 “이미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기에 자전 폐지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건 없이 전과시켜주는 안도 다른 학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전 학생들을 LD학부로 소속 변경하기로 했다”며 협상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달 2일(화) 자전은 학교로부터 갑작스런 자전 폐지 통보를 받고 27일(수)에 비상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시위를 진행해 학교와의 대화를 요구하고 성명서로 학생들의 서명

을 받는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에서는 자전의 LD학부로의 개편이 우리학교의 국가고시 성적을 끌어올리고 더 우수한 입학생을 받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태 우리학교 기획조정처장은 “최근 우리학교에서 공직에 진출하는 졸업생의 수가 줄어들었고, 입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전을 L&D학부로 개편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전 재학생의 커리큘럼이나 수업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지원(사회·자전 12) 자전 학생회장장은 “비록 협상은 타결됐지만 재학생들의 커리큘럼 및 수업권 보장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과 LD학부 사이의 커리큘럼 연관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학생들과 논의한 뒤 학교에서 LD학부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다시 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다른 학과 재학생들은 이번 협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심민철(영 어·영문 12)군은 “애초에 자전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만큼 LD학부로 소속 변경하는 안을 채택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 전수진(동양어·마인어 13)양은 “시위 할 때 자전의 정체성을 근거로 들었던 학생들이 LD학부로의 소속 변경 안을 제시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지난 3월부터 서울배움터 11개 단과대학 중 9개의 단과대학이, 글로벌배움터 7개 단과 대학 중 1개 단과대학의 총회가 열렸다. 총회를 진행한 10개 단과대학 중 일부어대를 제외한 9개 단과대학의 총회가 성사됐다.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경영대학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 경영학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인 단독경영관 건립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학교 내에는 단독경영관이 없어 한 건물에 여러 단과대학과 학부 및 학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수업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경영학전공자들은 10, 11, 12 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있는 실

정이다.

사범대 늦은 밤 안전을 위해 CCTV를 재설치하고, 지하 자치 공간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안건이 있었다. 지하 자치 공간(교수학습개발원 지하)에는 학생회실, 열람실 등 각종 시설이 있다. 하지만 오후 11시 이후 이용할 수 없고 지하 자치 공간으로 통하는 쪽문 또한 너무 이른 시간에 잠겨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국제지역대학 이번 달 10일(수)에 열렸던 국제지역대학 총회에서는 장태상 국제지역대학장이 참석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

과 질문은 국제스포츠레저학부의 국제지역대학 편입이었다. 국제스포츠레저학부의 편입에 대한 학생의 물음에 장태상 국제지역대학장은 “학과 성격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단과대 체제에 편입되지 않으면 교무위원회에서 그 학부를 대변할 공식기구가 없기 때문에 단과대에 소속된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손보미나(국제지역·아프리카 10)국제지역대학 학생회장은 “학장이 참석해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양 배움터 2013년 상반기 단과 총회

단과대	주요안건	성사
동양어대	광역화 논의	o
일본어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국제학사에 일본어대 자치공간 마련	x
사회과학대	자유전공학부의 존속을 주장 전임교수 비율 확대 및 전공 필수 과목 증설과 광역화에 대한 논의	o
글로벌경영대	글로벌 경영대학만의 단독 경영관 건립에 대한 논의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한 기존 재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전임교수의 균형적인 확충과 수업의 다양화	o
사범대	사범대 지하 자치 공간 개방 연장 요구 실용외국어 9,10교시 폐지 교직 강의 수 늘리기	o
국제지역대	전공수업 여건, 개선어문학관 승압공사	o

earTHome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 당신, 떠나라!

외국인학생들이 말해주는 여행지

곧 벚꽃이 만발하는 봄이 다가온다.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 하지만, 책을 펴면 꺼낸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모두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 외국인들이 추천하는 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



▲데이지 가브리엘라 가르시아 페레스 (Daisy Gabriela Garcia Perez), 파라과이, 사회·미디어

한국으로 오기 전, 자국에서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나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왔는데, 파라과이의 '예수회 선교유적지(Ruinias Jesuiticas del Paraguay)'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파라과이는 이과수 폭포 같은 많은 영토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어서 가볼만한 여행지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큰 애국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뒤로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곳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쉽기도 해요.

혹시 그곳 외에 한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이요. 도시 자체가 유럽풍인데다가 파리와 같은 도시를 만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전주의 형식의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중에 여행할 때 방문하면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열차박물관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곳에 가면 남미 최초로 파라과이에 놓인 기차를 볼 수 있습니다.
김재훈 · 임수진 수습기자 87curious@hufs.ac.kr

혹시 한국으로 오기 전, 자국에서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있나요?

저는 어느 곳 보다는 저의 고향인 스페인의 그란 카나리아(Gran Canaria) 섬을 추천하고 싶어요. 비록 이 섬은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스페인 영토에 속해 스페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죠. 한 해 내내 맑은 하늘과 따뜻한 날씨 덕분에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섬 안에 위치한 라스 팔마스(Las Palmas)라는 도시로 가면 유럽의 고딕 건축물부터 맛있는 해산물 요리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고향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다른 여행지가 있다면요?

개인적으로는 유럽 제4의 도시라고 불리는 마드리드가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을 도시인 것 같아요. 그곳 역시 한 해 내내 날씨가 온화해서 유럽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죠. 특히 그랑비아(Gran Via),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산티아고 베르나베우(Santiago Bernabeu)같은 장소는 다양한 문화체험도 가능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요. 하지만 어떤 곳을 가든지 관광객이 북적대는 곳에서는 지갑을 조심해야겠죠?
서보윤 · 정가림 수습기자 87rackhamkj@hufs.ac.kr



▲알레한드로(Alejandro), 스페인, 사이버외국어대 스페인어학부 조교



▲틸랑 소바나(Thilang sovanna), 프랑스, Korean Intensive Program

한국으로 오기 전, 자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나요?

저는 퐁리리 정원(Jardin Des Tuileries)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퐁리리 정원은 루브르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처럼 웅장하기 보다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더운 여름이면 잔디밭에 누워 낮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기억이 나네요.

들어보면 평범한 공원인 것 같은데,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의 대표적 관광지인 루브르 박물관을 추천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 아닌, 휴식을 제공하는 편안한 곳을 관광지로 추천하고 싶어요. 파리에 온다면 루브르 박물관이나 에펠탑같은 장식품들만 구경하지 말고, 퐁리리 정원에서 프랑스인의 일상을 관찰하거나 휴식을 취해보세요. 커피이시라면 데이트코스로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물관을 갔을 때보다 더 깊어지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영호 · 주희진 수습기자 87heejinlea@hufs.ac.kr

세계 브리핑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서거



▲영국 첫 여성 총리이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대처가 8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영국 왕실과 총리실은 물론 각국의 지도자들로부터 애도가 쏟아졌다.

이번 달 8일(월)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영국 보수당 최초의 여성 당수이자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 '철의 여인' 대처는 1979년부터 90년까지 11년간 영국 수장으로 재임했다. 20세기 이후 영국 최장수 수상으로 기록되는 대처는 식료품점의 팔로테어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비록 그녀에 대한 평은 엇갈리나 영국의 경기침체를 끝내고,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냉전 종식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등 그녀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녀의 장례식은 다이애나비의 장례식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처칠이 묻힌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미 해군, '레이저 무기' 세계 최초 실전 배치

미국 해군이 다음 해 세계 최초로 'LaWS(Laser Weapon System)'라는 레이저빔 무기를 선박에 장착해 페르시아만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LaWS는 선박의 엔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발사돼 기존 재래식 무기들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 또한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적의 *고속정이나 *드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안개 또는 비 속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아 아직은 개발의 초기 단계이다. 그럼에도 미 해군이 LaWS의 시험영상을 공개하고 실전에 배치하려는 것은 이란에 대해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란의 국지적인 도발과 핵 협상의 교착상태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고속정 : 주로 연안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드론 : 무인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군사용 항공기

키프로스 4억 유로 규모 금 매각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합의 이후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중인 금 4억 유로 상당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유로존이 수차례 재정위기를 겪었지만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금을 팔아 대처한 경우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 이후 키프로스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금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돼 국제 귀금속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키프로스의 이 같은 대처방안이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향후 유로존에서 구제금융이 발생할 경우 금 매각을 통해 채무를 줄이려 하는 국가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키프로스 정부관계자는 자국의 금 매각이 일회적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전문가들도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자금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번역 · 정리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외대학보 제2회 학술대전

- ▶ 응모 자격 : 우리학교 학부생 누구나(휴학생 포함)
- ▶ 공모 기간 : 9월 1일(일)부터 ~9월 30일(월)까지
- ▶ 주제 : 자유 (모집 분야에서 택1)
- ▶ 모집 분야
 - 중 · 단편 소설: A4용지 15매 이상
 - 논문: A4용지 20매 내외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 ▶ 수상작 발표 : 2013년 2학기 중 개별 연락 및 외대학보 지면
- ▶ 응모 방법
 - 이메일 : hufspress@hanmail.net
 -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401호 외대학보사 130-791
- ▶ 문의 사항 : 02-2173-2504

- ▶ 상금
 - 대상 70만원 및 상패
 - 최우수상 5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30만원 및 상패
- ▶ 유의사항
 - 논문,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은 팀 제출 가능
 - 출품된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분야별 우수작끼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분야별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상 이후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 공모전 일정은 학보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인 1작품 출품
- ▶ 심사기준 : 본지 957호 12면 '외대학보 제1회 학술대전 심사총평' 참조

HUFSPRING

서울배움터 vs

글로벌배움터 그 승자는?



사진으로 비교해보는 양 배움터 봄 풍경

이번 해 유난히도 늦게 찾아온 봄. 마음만은 여의도로 달려가서 벚꽃축제도 즐기고 싶고, 고궁을 거닐며 봄 정취에 흠뻑 빠지고 싶은 당신. 그러나 현실은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 밀려있는 과제들에 걱정이 앞선다. 여기 가까운 곳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살랑대는 봄바람을 거절 말고, 양 배움터에서 봄을 만끽 해보는 건 어떨까?

문나윤 ·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서울배움터



▲서울배움터의 봄은 후문에서 먼저 왔다.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아 앙상해 보이는 나무들이 많은 정문과는 달리 후문에는 제법 꽃 피운 나무들이 많이 있다. 후문에서 보는 벚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당신이라면 그대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 경희대로의 산책은 어떨까?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하지만, 우리 외대인들에게는 사계절이 독서의 계절이다. 특히 서울배움터의 햇살 가득한 봄은 책을 읽기 안성맞춤이다. 푸르른 나무들과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독서하는 당신이 진정한 봄을 즐길 줄 아는 외대인!



▲서울배움터에서 봄햇살이 가장 잘 든다는 본관 앞의 모습. 이따금씩 나오는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면 여의도 공원 안 부럽다.

글로벌배움터



▲서울배움터에 벚꽃이 있다면 글로벌배움터에는 개나리가 있다. 학교 곳곳에 피어있는 노란 개나리는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해준다. 노란 개나리 길을 따라 걷다보면 오늘은 뺑자 없이도 인문경상관에서부터 기숙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나 정도면 책 한권도 분위기 잡고 읽어줘야 하지 않겠어?' 라는 청춘이라면 읽으려면 이곳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그림같이 푸르른 하늘과 잔잔한 호수는 뽀뽀했던 오늘의 일정에 잠시나마 평안을 가져다주고, 금세 책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충분하다.



▲글로벌캠퍼스의 햇살 담당 올레길! 캠퍼스인지 공원인지 저절로 물어보게 되는 이곳. 시설관리팀 김영철 선생님은 "직원들이 삼나무 팻말, 삼나무 삼나무계단까지 손수 만들었다"라며 애정을 아끼지 않으셨다.

2014 모집단위 광역화

학문의 통섭인가 새로운 경쟁인가

지난 해 가을부터 우리학교에 '광역화'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2014년도 신입생부터 모집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학 및 계열로 '광역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서울배움터 및 글로벌배움터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학생들이 광역화에 대한 논의를 알게 된 시점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가 모집단위 광역화를 승인한 후였고, 우리학교는 다음 해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광역화는 무엇일까.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은 누구의 후배가 되는 것일까. 광역화를 시행하는 주체들끼리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 것이며, 학생들 사이에서 정보의 공유는 제대로 이뤄지는 것일까.

다가오는 광역화, 그 정체가 무엇이며 내년도에 바뀔 교과과정은 어떻게 확정됐는지 돌아보자.

광역화 선봉장 서양어대학 "입시 결과 상승 기대"

광역화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서양어대학(이하 '서양어대')이다. 서양어대 교수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일차적으로 학과장회의를 거쳐 전체 교수 회의로 넘어간다. 광역화 논의 역시 학과장들끼리 모여 의견을 나눈 후 전체 교수 회의에서 결정됐다. "서양어대 소속인 입학처장님께서 서양어대 교수님들께 입학현황과 다른 학교 자료 등을 보여주셨고, 그 자료를 토대로 고민을 했다"는 게 권철근 서양어대학장의 말이다.

서양어대에서 광역화를 통해 가장 먼저 예측하는 효과는 '입시 결과 상승'이다. 서양어대는 단과대학이라는 큰 모집단위로 뿔개 되면 하위 과들의 입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권철근 학장은 "현재 서양어대 학생들은 '나는 서양어대 학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이탈리아어과 학생'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광역화로 들어오게 되면 서양어대를 포괄하는 넓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학문의 통섭 효과'를 말했다.

그러나 언어를 공부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대해 권철근 학장은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1학년 전부가 아니라 1학기만 광역 단위로 공부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양어대를 포함해 내년 광역화로 들어오는 모든 새 내기는 1학기 동안만 학부생으로 공부하고, 2학기부터는 학과 단위에 편성된다. 권철근 학장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양어대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차분하다. "갑자기 딱친 광역화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떤 교과과정을 만들지 같이 논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김우송(서양어·네덜란드어 09) 서양어대 학생회장의 말이다. 서양어대의 경우 학장·부학장·학과장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1학기 내내 광역화 교과과정을 만드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소위원회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학장님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내가 자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것이다"고 김우송 군은 전했다.

동양어대학 "광역화는 가진 카드가 많아지는 효과"

지난 해 10월, 동양어대학(이하 '동양어대') 교수들 모임에 참석한 유기환 입학처장은 "우리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면 지금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동양어대 입학 성적과 타대 자료 등을 보여줬다. 그 자리에서 광역화 찬·반 투표가 이뤄졌고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김영연 동양어대학장은 "광역화는 입시결과 상승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란어만 익히는 것보다 같은 이슬람권인 이란·아랍·터키를 아우르는 공부를 하면 가진 카드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김영연 학장은 "언어는 자칫하면 수단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인접 국가를 아우르며 인문학의 기초도 다지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수들이 팀티칭으로 한 수업에 들어가 한 자리에서 여러 나라를 함께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화 결정 이후 동양어대 학생들은 꾸준히 광역화를 준비했다. 지난해부터 서명 운동을 실시해 학생들로 이뤄진 광역화 소위원회를 인준했다. 동양어대의 경우 학생회장 선거가 후보자 공백으로 무산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운영된다. 비대위는 동양어대 교수들이 내놓은 두 가지 교과과정을 가지고 지난 달 27일(수) 정기총회를 열어 학생들 전체와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양어대 내에서 △중동*이란어, 아랍어, 터키·아제르바이잔어, 몽골어) △동남아(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 세 가지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부한다'는 안이 선택됐다.

김영연 학장은 "학생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했

든
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가장 큰
이유다. 또한 "광역
화로 들어온 학생들의 소속
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
였다.

그럼에도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광역화를 추진한 것은 입학 모집 수가 늘어나는 효과 때문이다. 실제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와 정치 모집 정원은 각 24명으로 '사회과학계열'로 모

과과정에 있어 현재와 거의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과학대학은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자유전공학부로 구성돼 있는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당장은 광역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이며 자유전공학부는 내년부터 L&D학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따라서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 두 학과만 광역화된다. "정원의 60%를 차지하는 수시생은 전공예약으로 들어오는데다가 두 과만 광역화되기 때문에 이 두 과의 공통과목을 개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서경교 사회과학대학장은 말했다.

광역화, 새로운 경쟁이자 새로운 기회

광역화는 원하는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부제와 달리 학과를 선택할 때 성적 제한을 둔다. 이는 대학에서 다시 입시경쟁을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유기환 입학처장은 "뒤집어 생각하면 '더 좋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며 "또한 입학 때는 그 학과를 갈 성격이 안 되는 학생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입학정책만으로 광역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서양어대학의 경우 EU를 모르는데 어떻게 네덜란드어 전문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으로는 자기 전공만이 아니라 학과 간 교류를 넓히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른 학교는 어떨까. 서강대는 오래전부터 학부제를 시행해왔다. 성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서강대 학생들은 이에 큰 불만을 없다. 재학생인 김무연 군은 "오히려 인기가 별로 없는 독일어문학과를 선택해 소수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고 말한다. 그는 "학부제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 어떤 학과를 갈지 정한다. 그런데 1학년 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듣고 생각했던 학과와 다르게 적성을 찾아 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강대 학생들의 소속감은 어떨까. 서강대에는 학과 소속감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는 '섹션'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나의 학부 안에서 다른 과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작은 섹션으로 나눠 그 안에서 뭉치는 것이다. 섹션 안에는 정식으로 학생회도 존재한다.

"섹션의 장점은 하나의 학부 안에서 다른 과 학생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무연 군의 말이다.

서강대 인문계에 존재하는 4개의 섹션 이름은 매·난·국·죽이다. 국어국문학·사학·철학·종교학이라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사군자로 조화를 이루며 어울린다. △학생 △교수 △직원 모두의 소통을 통해 우리 학교도 아름다운 광역화를 이뤄내길.

* 몽골어의 경우 중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아직 가칭이다.



교수들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광역화 연구를 할 것이다"고 말하며 "학생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애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원 증가 효과 노리는 사회과학대학·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은 광역화에 우려가 많다" 김영훈(사회·언정 11)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의 말이다. 그는 "광역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이 김영훈 군의 말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교과과정을 만드는 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광역화를 이토록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과학대는 서양어대나 동양어대처럼 학과별 입시결과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입시 결과 상승에 의문이

집하는 중앙대의 정시 모집 정원 174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게 느껴진다. "너무 정원이 적으니까 학생들이 지원하기 겁날 수 있어요"라는 게 장현주 행정학과장의 의견이다. 이는 인문대학(이하 '인문대')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 인문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현재 △철학 16명 △사학 22명 △언어인지과학 15명이다. 중앙대의 '인문과학계열'의 정시 모집 인원 157명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느껴진다.

또한 인문대의 경우 "인문학은 융합해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한 학문"이라는 것이 체희탁 인문대학장의 생각이다. 그는 "사실 인문학의 경우는 1학년 2학기가 아니라 3학년 쯤 학과를 선택해도 될 만큼 광역화는 인문학에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인문대는 다음 학기에 이례적으로 정기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반면 '인문학이라는 공통 영역으로 묶인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인문대와 달리 사회과학대는 교

쉐어하우스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대학생들

“소음문제가 가장 불편해요 옆방에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소곤소곤 말해야 되거든요.” 고시텔에서 살고 있는 김시량(국제지역·아프리카 12양)의 말이다.

이런 적에, 대학생들이 집세 걱정없이 한 집에서 재미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담아낸 시트콤이 있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지금, 이 시트콤이 심어준 환상과 다르게 비싼 보증금, 월세, 전기세 등을 고민하며 좁은 방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보인다. 국토해양부 최저주거기준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4.2평 이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주지를 임대해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그에 가까운 면적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주거고민에서 벗어나 보증금 부담없이 약 40평의 집에서 6명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그곳을 방문했다. 이 집의 이름은 우주(WOOZOO, 우주)이다. WOOZOO는 ‘우리들의 집’의 줄임말로 노후된 집을 리모델링한 후 대학생·일반인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우주 외에도 주택을 빌려 함께 건축 작업을 하고 금요일(Friday)에는 튀김(Fry)을식을 튀겨먹으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을 이태원에서 만날 수 있었다.

우주를 만드는 사람들

우주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의 집세 걱정을 듣고 ‘왜 집은 이렇게 비싸야 하지?’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으며 저마다 테마를 갖고 현재 3호점까지 만들어졌다. △1호점은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 △2호점은 미술을 하는 사람 △3호점은 인턴이나 직장 등 일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계현철 우주 공동창업자는 “친해지려면 매개체가 필요해요”라며 “함께 사는 사람 간에 친목도도 및 공통점이 되는 매개체를 저희가 미리 찾아주는 거죠”라고 말했다.

‘쉐어하우스’,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만들어요

쉐어하우스는 외국에서는 아주 익숙한 집의 형태

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쉐어하우스 형태가 들어오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개념도 정확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우주는 쉐어하우스로 삶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그들과 시간·관심·생각 등 다양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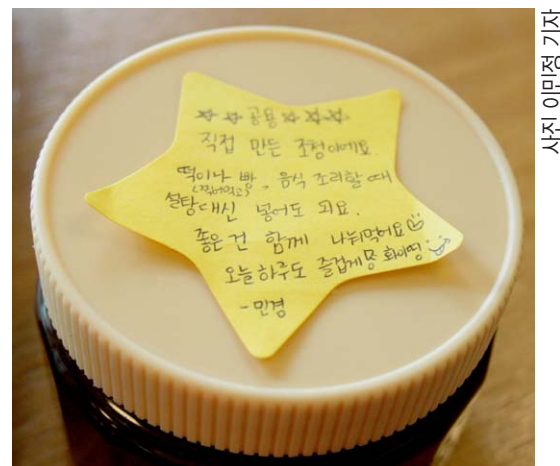
1호점과 3호점은 마당이 있는 한옥으로 흙 하나 없는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살고 싶은 집이다. 계현철 우주 공동창업자는 “입주자들이 재미있다고들 말해요. 다녀올게요. 오셨어요?하며 서로 인사하는 것, 또 사람냄새가 나는 이 공간이 집에 온 느낌이라서 좋다고 해요”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곳곳에 쉐어하우스 형태의 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드라마나 시트콤을 보면 알 수 있듯 쉐어하우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온전히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판 남들과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낯설다. 그런데 새로 생겨나는 쉐어하우스들은 한국정서와는 달리 외국의 쉐어하우스 형태를 그대로 옮겨와 마치 조선시대에 호를 들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우주는 입주신청자

한명 한명을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 공통점이 있어 잘 어울리는 3명 또는 6명의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또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주방문에 동행한 서울대 건축학과이세진 군은 “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집이에요. 마당은 서로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이 집은 그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아서 멋있네요”라며 소감을 표했다.

“우주 같은 형태의 집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기사의 주거 문제는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주는 경제적인 제약에 밀려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 사람들이 정말 원해서 들어오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계현철 우주 공동창업자의 말이다. 이에 도현명 한국임팩트평가(KIA: Korea Integrated Impad Analytics) 공동대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쉐어하우스는 대학가 원룸, 오피스텔의 치솟는 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대학생들의 파편화된 인간관계 회복 및 소속감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현 소규모 형



▲포스트잇 사진 좋은 것은 나눠먹어요! 우주에서 만난 따뜻한 하고 기분 좋은 메시지.

태의 쉐어하우스로는 이러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규모 확장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단”라고 덧붙였다.

우리도 쉐어하고 있어요

우주가 지은 쉐어하우스 외에 또다른 방식의 쉐어하우스도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5명의 학생들은 방 3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을 모두 갖춘 주택을 빌려서 살고 있다. 두 명이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밤샘작업, 파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총 5명이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90만원을 내는 것이다. 이 집에 상주하는 서울대 건축학과 정소라 양은 “학교근처에서 자취하려면 적어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40만원이란 큰 돈을 내야하고, 혼자 살면 외로움을 많이 타요”라며 “쉐어하우스로 살면 더 저렴하고, 외롭지 않는데 개인공간까지 있어 사생활도 보장되죠.”라고 말했다.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주거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주거공간은 원룸 형태가 많아 온전한 집에서 해체된 낱알개의 방이 떠오른다. 이런 방에 쉐어하우스는 비싼 비용을 내면서 외로움까지 않고 있는 20대의 주거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우주 거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3호점 우주는 모든 방에 통유리로 된 창문이 있어 소통과 교류의 의미를 더해준다.

영화에 주석을 달다 기자 고정 칼럼 양재상 기자

‘영화에 주석을 달다’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영화의 다른 면을 알아보고 싶은 칼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먼 옛날, 고도의 지식과 높은 도덕수준을 지닌 존재가 있었다. 인생의 의미를 끝없이 토론하는 데 치진 그들은 인생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계산하기 위해 우주를 통틀어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컴퓨터에게 물었다. “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세요” 컴퓨터는 답했다. “답은... 42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어 어리둥절해하는 이들에게 컴퓨터는 덧붙였다. “제대로 된 질문을 말해야 답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번 해도 벌써 4번의 10이 나왔다. 이번 학기도 곧 절반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태까지 아무 일도 안한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 않는가.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기도 하다. ‘아,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하나로 딱 정해져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궁극적인 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도 모르겠고, 그런 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다른 이에게 물어봐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우주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저 컴퓨터도 ‘답은 42입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어지는 컴퓨터의 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질문을 말해야 답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상황과 문제를 인식한 뒤 해결책 도출’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시점은 아마 그 두 단계의 사이가 될 것이다. 아, 그렇다면 질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선 ‘상황인식’이 필요한가보다. ‘여태까지 난 뭘 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 나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뭘가 문제 인건지’ 질문을 한 번 던져 보자.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을 고민하다 보면 저 컴퓨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다. ‘제대로 된 답’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임채운 기자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괴테가 베르테르를 죽인 것처럼

그림을 조심스레 펼친다. 웬 무표정 소녀가 우리를 직시한다. 웬지 정면으로 바라보기 겁나 고개를 살짝 틀어 측면에서 잠시 지켜본다. 그러다 갑자기 소름이 짝 끼친다. 이 아이, 지금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장사오강, 무제

이 소녀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수면에 비친 자신이다. 거울처럼 명확하지 않고 뿌옇게 처리된 얼굴이 그것을 말해준다. 눈물이 그림 맺힌 눈은 자신을 이미 흑백으로 바라보고 있다. 너 지금 설마 물에 푹 빠지려는 거나.

이 그림에 제목이 없듯이 이 소녀에게는 표정이 없다. 소리내 울지도 않고, 징그러지도 않는다. 누가 이 아이에게서 표정을 빼앗았을까. 극도로 슬픔이 크면 슬픔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더해 그저 허덕 허덕 숨만 쉬고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소녀는 슬픈 표정도 짓지 못한다. 어쩌면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소녀. 이 그림은 자아를 스스로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자가 삶을 포기하기 직전의 표정을 소름끼치도록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을 닫아 버린다. 혹 살면서 이 소녀와 같은 결심을 한 적이 있는가. 당신이 처해있는 어두운 현실에 단 한 가닥의 빛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극심한 슬픔과 허무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순간에 이 그림을 다시 펼쳐 정면에 놓자. 차가운 수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동시에 그림 밖 우리를 바라 보는 듯한 이 아이의 큼직한 눈동자와 오래도록 마주하자. 그러다 물에 비친 것이 소녀가 아니라 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소녀이자 동시에 내 것이었던 자아를 푹 놓아버리자.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 당신의 힘겨운 삶은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그림을 닫는 것이다. 이제 소리 내어 울어도 좋다. 징그러도 괜찮다. 그리고 그때야야 안도하라. 방금 전에 저지른 당신의 죽음이 이제는 달려버린 그림 속 사건임을. 극심한 실연의 고통에 자살하고 싶었던 괴테가 자신 대신 소설 속 베르테르를 죽이고 평온을 얻은 것처럼.

** 기자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괴테의 삶과 비교해 내린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국제법조인 양성의 산실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달 4월 8일(월)부터 이틀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법학전문대학원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업박람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의 성공한 사례나 채용공고 등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다. 근래에는 변호사취업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법조계에도 심각한 취업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일정 학년에 한해 취업박람회 첫날 수업을 휴강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에 가는 것을 지원했다. 이런 취업난 속에서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김호정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만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학교는 2008년 7월 정부의 인가를 받아 2009년 3월에 50명 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개원 시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난해부터 석사학위과정뿐 아니라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3월 현재 5기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현재까지 8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적 목표는 '국제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자, 현재 국내에 설립된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을 특성화해 주안점으로 뒀던 문성을 살리고 있다. 즉, '변호사'로서 '국제적 식견'을 갖추고 '국제지역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호정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에 "간단한 예를 들자면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법조인이나 외국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법조인을 말한다"고 했다.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적 목표는 '국제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구하는 국제지역 전문법조인이란 4가지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자 △국제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한 자 △국제 분쟁과 상사분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자이다. 이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이며,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초법학 △기본능력 함양 △심화교육으로 총 3단계의 과정이다. 교과목은 이론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5가지의 실무과목인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법조윤리 △실습과정(엑스틴십 또는 리걸클리닉)에 대해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렇듯 학부였던 법과대학과는 달리 실무·실습이 많은 것이 대학원의 특징이며 강점이라는 김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은 우리학교 부설 글로벌법률상담소 내 기구이며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에게 임상법학을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은 외국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2011년 9월 26일(월)에 주한 브라질 대사관과 공익 법률 자문서비스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김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이후로 현재까지 글로벌 법률상담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브라질 국민들에게 9건의 공익적 법률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다뤄왔던 구체적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국내 폭행사건과 출입국 허가 △한국여행 중 뇌출혈로 COMA 상태에 이른 경우 △모텔의 임금체불 △국가대표팀 축구코치 계약해지 △강제근로 및 임금체불 △법무부의 고용비자 거부 △근로계약 및 고용비자 △브라질 국적자 이혼문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법률상담 등이 있었다.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인 리걸클리닉

과거 법과대학 4년, 사법연수원 2년의 6년 과정을 현재 모스쿨 3년으로 모두 마쳐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원장은 "반절로 줄은 기간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그래서 어학이 바탕이 되고 국제지역에 능통한 인재 선발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번 입시에서도 변동사항없이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밖에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의 국제지역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다. 그것은 국제관계 및 8개 권역의 지역별 교과목을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본 △EU 외의 BRICS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나아가 △Post-BRICS라 칭해지는 VISTA(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를 중점연구지역으로 교육하고 있다.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깊이 탐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특히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과 학점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매년 10여 명 이상의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이러한 노력에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결과는 더욱 빛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 주관 하에 각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된 제 1회 변호사시험에서 우리학교는 졸업생 42명 중 4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정원대비 합격률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번 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이번 달 26일(금)에 예정돼 있다. 특히 김 원장은 2기 졸업생인 고려진 양을 소개했다. "고 양은 우리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으로서 법학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졸업을 하고 이번 해 졸업생 중 유일하게 검사가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11월 제 53회 사법시험에서 우리학교 출신의 졸업생 및 재학생의 최종 합격자는 총 11명이다. 우리학교는 매년 10여 명 이상의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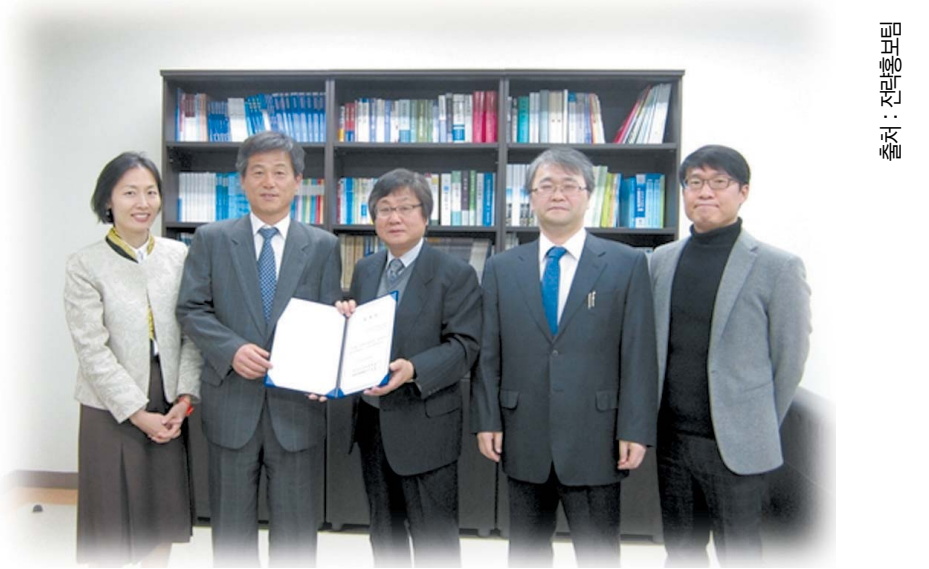
더불어 김 원장은 지난 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이하 마인어)과의 장학금 기부를 소개했다. 김 원장은 "마인어과의 장학금 기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와도 부합하는 법학 전공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학생 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말했다. 동양대학 마인어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4기로 입학 한 김은비 양이 첫 수혜자가 됐다. 김 원장은 "특히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과 학점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사진: 김호정 기자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선도해 나가는 국내 제 1의 글로벌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 낼 것"

김호정 원장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대대는 우수한 한국법을 세계화하는데 앞장 설 것"이며 "동시에 외국사법제도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선도해 나가는 국내 제 1의 글로벌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앞날에 대해 목표를 드러냈다. 이어 "우리학교의 대학 및 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최적의 수준에서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법조인을 배출할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출처: 전라홍보팀

▲지난 해 11월 이인복 대법관 초청 강연 시 있었던 이인복 대법관 멘토교수 위촉식 사진. 왼쪽에서부터 △정소민 교수 △이인복 대법관 △김호정 법학전문대학원장 △강구수 교수 △김성규 교수.

제 1회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순위	대학	입학정원	합격자	합격률
1	경희대	60	50	83.33
2	한국외대	50	41	82.00
3	아주대	50	41	82.00
4	고려대	120	98	81.67
5	이화여대	100	81	81.00
6	성균관대	120	97	80.83
7	한양대	100	78	78.00
8	연세대	120	93	77.50
9	건국대	40	31	77.50
10	서울대	150	116	77.33

2013학년도 입학전형방법(2014학년도 입학전형시 유사하게 진행 예정)

모집인원 (가/나)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1단계	2단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30/20	· LEET* : 100 · 학부성적 : 80 · 어학성적 : 100 · 서류심사 : 120	· 1단계성적 : 400 · 면접 : 100	정원의 3~5배수	총점순위	나군, 3명
	[합계 : 400]	[합계 : 500]			

* LEET : 법학적성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련 Q&A

- 서류 평가의 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수의 서류평가위원이 지원자의 학업성취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나 지원자의 각종 사회활동 및 경력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소개서에는 대학생활과 특기사항,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희망직역 등을 기재하고, 학업계획서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역과 관련하여 지원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 면접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인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창의성, 논리력 및 사고력 등이 심층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면접시험에 있어서 법학관련 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신인지 기자

좀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바라며



이번 달 11일(목)에 글로벌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오후 6시 반부터 상반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그 날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세찬 바람이 불었고 쌀쌀한 날씨였다. 기자는 이번 정총은 날씨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기자가 재학생 지금까지 참가했던 정총중 가장 많은 인원인 1403명이 참석해 총회는 성공리에 성사됐다.

기자가 1학년 때인 지난 2011년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정총과 더불어 비상학생총회까지 총 3번의 총회가 열렸지만 비상학생총회 단 한번 성공했을 뿐이다. 그 다음 해인 2012년에는 2번의 정총 중 상반기 정총 1번만 성사됐다. 이번 정총의 경우 최대 집계인원은 무려 1549명이나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석하는 학생 수는 많아지고 무산되는 횟수는 줄고 있다.

그 만큼 학생들이 학내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생각한다. 이는 학생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총학생회의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기자 개인적인 생각은 학생들의 학내정치 참여의식도 한층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 총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기자로서 이번 정총에 참석한 학생들의 태도는 진정한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의결하는지에 대해 의심케 했다. 매 총회마다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총회 진행 중 총학생회장이나 사회자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주변 소음에 묻히고 많다. 때때로 경품추첨에만 반짝 모이고 회의 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학생들은 정기총회 안건 보다 후에 뒷풀이나 경품추첨에 관심이 더 가는 듯 보이기도 하다.

일례로 이번 정총에는 총학생회 회칙에 있어 개정과 신설이 꽤나 많았다. 이는 학생자치활동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칙으로 생각보다 중요하다. 또한 '법'이란 것이 토시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지게 하나마다 차분히 읽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회칙 개정 결의에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질의 하나 없었다. 끊임없는 질문으로 회의가 길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기자는 그 모습이 놀라고 의문스러웠다. 그런 학생들이 기자의 눈에는 조그맣게 쓰여진 '회칙'이라는 글씨들은 읽고 싶지도 않고 다만 날씨가 추우니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비춰졌다. 따라서 기자는 이번 회칙개정으로 후에 본인이 학내 자치활동등을 하는데 있어 입을 불이익이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걱정스러웠다.

이번호 10면 '지난호를 말한다' 글로벌배움터의 글에서는 지난호(958호)의 과회비 기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 기사로 인해 과회비 납부를 권리로써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학생으로서의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그 중 정총은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아직도 그 권리를 온전하게 제대로 행사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 전형기(통번역·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도 이번 정총에 대해 "학우 한명 한명이 모두 학생대표자라는 인식을 가질 바란다"라 전한 바 있다. 기자도 그 뜻에 함께하고 같은 바람이다. 다음 학기 하반기 정기학생총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성숙한 주인 의식과 주체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길 바란다.

동문의 소리



전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 현 한국·아랍 소사이터티 사무총장 정용철(동양어·아랍어 72)

내가 아랍어과에 입학한 게 1972년이니 40년 전의 일이다. 1차 대학 시험에 낙방하고 재수하기 싫어 외대를 가겠다고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왕 외대를 갈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언어를 하라고 하시며 아랍어과를 택할 것을 권유하셨다. 선생님의 조언대로 아랍어과를 지원했고 과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자원입대하여 3년 후 복학하여 외무고시에 합격한 친구가 물려준 책으로 외무고시를 시작했다. 처음 1년 동안은 1차 시험 합격이 목표였는데 당시는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 1차 시험 없이 바로 2차 시험을 볼 수 있었다. 1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한 결과 1차 시험에 합격했다. 다시 1년 동안 2차 시험공부, 4학년 초에 2차 시험이 있었는데 합

미네르바의 추억

격이었다. 3차 면접시험은 요즘과 달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복한을 찬양하거나 반국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모두 합격이었다. 이렇게 해서 아랍어과 최초로 외무고시 합격자가 되었고 나의 합격에 고무되어 그 뒤로 몇 명의 후배들이 나의 뒤를 이었다. 1979년 5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망의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1982년 처음 근무지로 이집트를 지원해서 그 해 3월 카이로에 부임하니 참으로 황당했다. 양배추로 김치를 담고 국제전화를 하려면 밤 12시에 전화국에 가서 국제전화를 신청하고 한참을 기다리면 한국의 부모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 뒤 30여년의 세월 동안 바레인, 시카고,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인도네시아에 근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사를 역임하고 작년 외교관 생활을 마감하였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다. 두바이의 에미리트 항공사가 세계적인 항공사로 부상하자 아부다비 왕세자의 지시로 에티하드 항공사가 새로 설립되어 항공망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도 인천 취항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추진하던 고등훈련기 수출이 무산되자 항공회담팀이 회담을 결렬시

키고 귀국한 일이 있었다. 주재국 정부에서는 대사인 나를 불러 항공회담을 결렬시킨 것이 한국 최고위층의 의지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는 외교관계에 있어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본국 정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에티하드 취항을 허가해 주도록 요로에 청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행히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어 항공회담이 타결되었고 그 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 이루어 졌다.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좋은 영어 문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외대는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다. 외대인이여, 좁은 국내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져라.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최대의 무기이다. 그 중에서도 영어가 최우선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영어구사 능력을 키워라. 그리하면 무한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일시 정지

'내가 지켜줄게'



▲ 이번 달 11일(목) 정기총회가 열린 글로벌배움터는 세찬 바람으로 매우 추웠다. 뒤쪽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는 후배를 위해 어디선가 종이상자를 구해온 선배, 상자를 날날이 해체해서 든든한 바람막이를 만들어 준다. 선배 최고!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지난호를 말한다 |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김미소(서양어·프랑스어 10)

지난호를 말한다 |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공평무사한 신문보도

최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학우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끈 주제는 단연 자유전공학부 폐지논란일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제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한다는 공지가 발표됐고,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에 분노한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들은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하고 시위까지 진행하며 이번 개편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LD학부 신설이 있다. 외대학보는 지난 호에서 '학제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한 발 앞서 취재하였고 LD학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1면에 실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 정책의 변동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우들이 학보의 기사만으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그 내용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한다. 지난 호 어디에도 자유전공학부 폐지와 그 쟁점, 학생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호를 읽으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보도 기사가 자유전공학부 폐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학보를 펼쳤을 많은 학생들의 필요를 심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LD학부 신설과 그 이면에 자리하는 자유전공학부 폐지는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외대학보가 중립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명을 달리한 두 학과를 공평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LD학부만을 다루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안타깝다.

요즘 많은 이들이 대학언론에 위기가 온 것을 염려한다. 우리 학보도 이러한 현실에 예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 지면에 보도된 것처럼, 대학언론 스스로가 위기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개선과 변화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학보 또한 비판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이를 포용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변화를 위한 외대학보의 노력에 높은 성과가 뒤따라기를 기대해 본다.

'외대인'의 외대학보

우리는 과회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번 외대학보에서 다룬 '과회비'에 대한 내용은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매우 새로운 내용이었다. 회비를 내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권리로써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더욱 이번 기사가 빛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기사를 토대로 많은 과들이 과회비 지출을 더 투명화하고, 우리 학우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의 몇 가지 아쉬운 내용을 손꼽자면, 1면에서 다루어진 임시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엔 새로 생긴 LD학부 신설, 자전 폐지, 일부 학부제 등 많은 변화를 우리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면 기사와 더불어 사실에서도 우리는 임시정책에 대한 장점을 알 수 있어 좋았으나, 아쉬운 점은 이에 대한 다른 면의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임시정책 변화에 따른 서울배움터 자전 폐지문제로 인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외대학보의 어느 면에도 볼 수 없었고, 또한 일부 학부제로 진행되는 임시전형에 대해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나의 사건에 있어 이에 대한 시각은 양면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서의 시각이 많이 미흡했다는 것이 독자로서는 아쉬운 마음이다. 학부제로 임시전형을 진행하는데, 왜 전형이 학부제로 변경이 되었는지, 이에 따라 장

단점은 없는지 등 변화에 따른 그 효과를 좀 더 조사하여 알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또한 대학언론에 대한 기사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대학언론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 기사에서는 정작 중요한 우리 '외대학보'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학교의 예를 들어 대학언론의 위기와 그 중요성을 말한 것은 매우 좋은 시도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외대학보에 대한 문제점인식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다른 학교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대학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언론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점이 독자로서 정말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었다.

신문의 기능으로는 객관적인 보도, 광고, 교육, 설득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외대학보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많아 신빙성이 한층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그 자료를 토대로 하는 기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다루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끔 내용이 다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임시전형에 관한 기사에서처럼 비판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면 학보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학보에 대한 외면이 증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 우리 독자위원회의 입장이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신선한 내용과 한층 더 성숙된 시각에서의 보도를 기대한다.



비둘기 칠판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글로벌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119 한국외대 학군단

충성! 3045번 왕산중대장 후보생 박 원입니다. 52기 선배님들께 감사편지 전합니다. 53기 대표로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53기 전체 생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3기 후보생들이 입단한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왕산에도 추위에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게 해주는 따스한 봄기운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과 유머로 후보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2기와 53기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53기 후배들이 되겠습니다. 용무이상입니다. 충성!

From. 박원(경상·국제경영 11)



▲ 53기 후보생들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익흔에게 이고은(글경·경영 12)

귀여운 고은아 안녕? 먼지바람 불던 3월 그 어느 날 이고은이 회기역까지 바래다준 일이 벌써 한 해 더 된 일아구나. 마른 야상에 까만 백팩을 메고 동방에 들어오던 너의 시끄러운 걸음걸이를 잊을 수가 없다! 사실 나는 네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 부끄부끄// \ 출사 엠티 신인전 준비하면서 너랑 같이 한 사소하고 소중한 기억들이 참 많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보고 지낼 인연이면 좋겠어. 정말로! 이번 학기 같이 꾸리게 된 암살 살림살이도 열심히 합시다. 게으른 암차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 이고은 짱

From. 전예지(영어·영문 12)



▲받는 사람 경영대 경영학과
왼쪽 전예지양, 오른쪽 이고은양



◆외대공감 - 스티커를 붙여라!

이번 959호 외대공감에서는 지난 달 28일(목)부터 우리학교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꽃이 만발, 봄바람이 살랑~ 우리 어디로 놀러갈까?>라는 봄나들이 주제로 일주일 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는 대학생의 마음이 늘 그렇듯 양 배움터의 결과와 비슷해 이번 조사결과는 양 배움터의 합계로 하나로 제시합니다.



자연으로 보는 봄! 벚꽃놀이, 등산 등



좋은 날씨! 신나는 유원지로 떠나자 놀이동산, 동물원 등



교양있게, 품위있게 미술과 연주회 등



우리네 전통을 찾아서 정치 물산 민속촌, 고궁, 한옥마을 등

다음 주제는 <학내 가장 꿀볼건>이라는 주제로 이번 달 18일(목)부터 일주일간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승차장과 본관1층 현관 두 장소에서 서울배움터는 학생회관 1층과 인문관 학생식당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설

자랑스러운 외대, 자랑스러운 외대인

우리학교 동문 4명이 '2013 매경이코노미 100대 CEO'에 선정된 것은 외국어 교육 기반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인 우리학교의 높은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이번에 선정된 100명의 CEO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30명, 고려대 18명, 연세대 12명, 성균관대 6명, 해외대학 6명, 그 뒤를 이어 우리학교가 4명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학교의 위치가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선정된 CEO들의 학부 전공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대의 경우 공대(14명)와 상대(7명)를 제외하면 기타 전공 9명이었고, 고려대는 상대(11명)를 제외한 기타 전공 7명이었고, 연세대는 상대(8명)와 공대(3명)를 제외한 기타 전공 1명, 성균관대도 상대(3명)와 공대(1명)를 제외한 기타 전공 2명, 해외대학도 상대(3명)를 제외한 기타 전공 3명이었다. 반면, 우리학교 출신 CEO 4명은 김기범(영)의 75, 신은철(독일어) 69, 윤용모(영어) 74, 조준희(중국어) 74 동문으로 전원 기타전공이었다. 기타 전공만 놓고 본다면 우리학교는 성균관대, 해외대학, 고려대를 모두 제치고,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국내 3위의 글로벌 CEO양성 대학이다.

이는 외국어 교육 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12년 3월 29일 우리학교를 방문하여 '외대는 수십년 동안 공무원, 외교관, 경제인 등의 리더들을 배출해왔고, 이들은 한국이라는 현대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국민국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적 경제 대국으로, 권위주의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내향적 국가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안보와 번영을 이끄는 리더로, 한 마디로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로 변모시켰습니다.'라고 극찬한 것이다.

우리학교 교육 과정의 핵심은 외국어와 실용 학문을 접목시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2014년 신설되는 LD(Language and Diplomacy) 학부도 언어와 정치, 외교를 접목시켜 학교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외대는 자랑스러운 대학이다. 외대에서 가르치는 교수, 배우는 학생, 행정 직원 모두 외대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자랑스러운 외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대학 내 학생자치권은

지난 며칠간 학보사 기자들은 여러 곳에서 문의전화를 받았다. △총학생회 보궐 선거 △대학언론의 편집권 △자치관리 게시판 △자유전공학부의 폐지 반대 시위 등 묻는 내용도 질문을 하는 곳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학내 학생들의 자치권에 대해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주 타대학보사가 구성하는 기획기사나 현재 주간지나 일간지에서 다루는 내용에서도 학내 자치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학내 사안에 대해 관심 없어 하는 학생의 무관심이 주제가 되거나 학교와의 자치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논하곤 한다.

외대에서도 자치권 문제는 같은 주제로 연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이 아직도 외대의 학생 자치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던 자유전공학부의 시위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단과대학학생회의 보궐선거가 성사된 소식 △글로벌캠퍼스 정기총회 성사 소식 △각 단과대학별로 정기총회 소식 등. 한 소식 한 소식 마다 그 내용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모여 외대의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생각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의미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에 학생 자치권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픈 지속적인 노력의 징표가 아닐까. 보다 먼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서 단순히 학교만 왔다 가는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값지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거나 원하는 뜻대로 안 돼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대 꽃샘추위가 강하다고 봄이 안오는 것은 아니다.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문나운 부장 홍규원

차장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운

조교 이현주 정진경

제작 ㈜경보미디어 인쇄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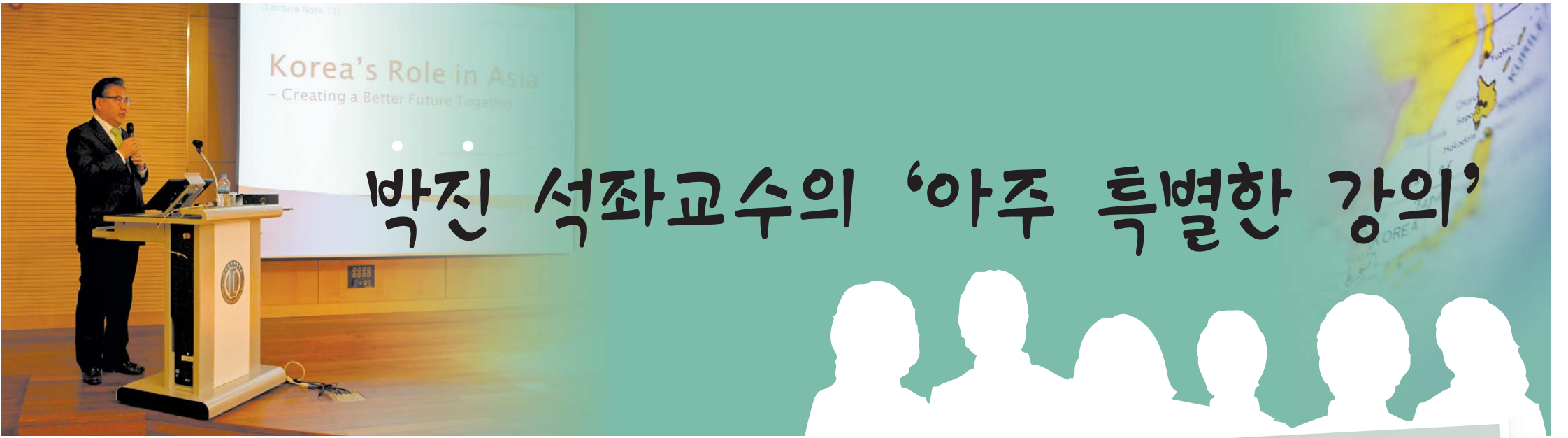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박진 석좌교수의 '아주 특별한 강의'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외대인이라면 입학하는 순간부터 항상 들으며 살고, 또한 달고 다니는 슬로건이다. 그 이유는 우리학교가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세계를 만나고 외대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연 어떤 것을 보기 위해 외대에 온 것이며, 또 그가 보는 외대는 어떨까.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세월동안 50개국 이상을 방문한 박진 석좌교수가 우리학교로 왔다. 세계를 통해 외대를 바라보는 그의 이야기 속에 빠져 들어보자. (*이 인터뷰는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Q. 안녕하세요, 박진 석좌교수님. 처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국비 유학을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며, 외교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대통령 비서관 등의 여러 정부요직을 거쳤고, 또한 제 고향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정치학 교수로 영국 대학교의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대 석좌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Q. 네, 크게 보면 △공직생활 △교직생활로 나뉘고 이외에도 많은 직업을 갖고 있으시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쭙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학교 시절, 사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 1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공부에 가장 쉬우셨나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공부에 매진하신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공부에 발동이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고시공부도 연애하듯 했어요. 학부시절에 만났던 음대 여학생이 시험에 꼭 붙으라고 응원해 주었죠. 그녀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 조교자격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법학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 첫 외국방문인데요, 출국하기 전에 스페인어 단기 숙성강좌를 몇 달간 수강한 덕에 현지에서 몇 마디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간 교수님들께서 물건을 살 때, 식사를 주문할 때 등 모든 소통을 저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버락기기로 생활스페인어를 공부기억이 납니다. 소위 발동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단기 목표만으로 동기부여를 한 뒤 다가서면 공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됩니다.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구요.

Q. 그렇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외교관이 되기를 꿈 꾸셨나요?

A. 외교관의 꿈을 꾸는 것은 고등학교 시절인 1972년 초, 미국과 중국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당시 서로 적대시하던 두 나라의 외교적 만남은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때부터 국제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외교적 만남을 통해 '죽(竹)의 장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딱 막혔던 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도 이와 같은 이치구나 싶었어요. 이후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피를 흘리지 않고도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꿈 덕에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장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외교를 다루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데탕트(détente)'라는 국제정세의 흐름이 제 인생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그 과정에서 교수님께 조언해주신 멘토가 있으셨나요?

A.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 나가면서 외교부 근무를 병행했어요. 막상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나름의 뿌듯함도 있었지만, 바쁘기도 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픈 일도 많아 몇 날, 며칠을 고민하기만 했죠. 세계는 넓은데 저의 지식은 좁으니, 유학을 가서 바깥 세상을 공부해 보고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공직에 들어섰으니 안정적으로 한 우물을 파고 지금을 견디라고 조언해 줬죠. 그런데 같이 일 하던 외교부 선배 분께서 저의 고민을 들으시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물으셨어요. 저를 가리켜 "박 사무관은 언제든 공직에 돌아올 사람"이므로 공부가 하고 싶으면 원 없이 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선배님의 조언 덕분에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해군장교 복무를 마친 뒤, 국비유학생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떠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그때의 나와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자로서 10여년의 생활을 했죠. 그러다 93년 3월 어느 날, 뉴캐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 의견 비서관인 바로 그 멘토 선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공부했으면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할 때가 됐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한 통에 청와대 비서관이 됐어요. 제 인생이 변하게 된 두 번째 계기였습니다.

Q. 그렇다면 꿈을 이루신 후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어요?

A.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 정부 비서관으로 수많은 정상회담에 동석할 수 있었습니다. 공보업무와 영어통역을 동시에 하며 세계 각국의 80명 이상 정상들을 만났던 그 5년 동안의 경험이, 저에게는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진지하게 경청하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만남, 소신 있고 개성 강한 당시의 힐러리 영부인과의 만남 외에도, 질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벨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내로라하는 각국의 수장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을 정리하고 집필하여 낸 2002년 '청와대비망록'은 저의 첫 회고록입니다.

Q. 반대로 청와대 비서실 재직시절이나 정치인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해 어려우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A.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비서실에서 국가운영과 정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체험한 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이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한 번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선량'이 되어서 직접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정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죠.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또 만들어가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국익을 위해 일하는 품격 있는 정치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함으로 인해 개인의 소신과 정당의 입장이 다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고민이 가장 많이 됐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학교에 석좌교수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 10년간의 정정활동을 돌아켜보면 보람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루도 쉴 틈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회와 지역구를 열심히 다녔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귀중한 경험도 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리는 열차를 타고 그냥 가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제가 내린 결론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3선 의원으로서의 정치생활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저는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정리하고 대학 내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고 싶었어요. 원래 대학의 공기는 자유롭다고들 하죠.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열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대학의 공기를 마시며 저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Q. 이번 달 10일(수) 그 첫 번째 강의를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강의를 하고 싶으세요?

A.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Korea's Role in Asia)'이었습니다. 21세기의 세계의 중심인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성장 △지역협력 △민주주의와 인권 △녹색성장 △문화소통분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견국가(Middle Power)로써 점차 커져가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강의를 흥미롭게 들은 후, 기발하고 예리한 질문을 해준 학생들이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 느낀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전하고 싶어요. 인적자원이 중요한 자산인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인재들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많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요.



▲ "꿈"을 갖고 도전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박진 석좌교수

사진: 홍규원 기자

Q. 다음에 강의하실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교수님의 인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내주고자 하는 과제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UN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세계미래학회에서 발표하는 'UN미래보고서'를 한 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지구촌의 문제인 △성장 △개발 △환경 △인권 △평화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미래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 좌표를 설정하려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짚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도 개인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젊은 시절 타국에서의 봉사활동은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Q. 끝으로, 오늘 강의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어요?

A. 젊은 시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기쁜 일도 많은 만큼, 어렵고 고민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가 대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는 그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학교가 가진 글로벌 경쟁력과 장점을 살리세요.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서 키우세요.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신 글로벌 대학의 글로벌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꿈을 꼭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1)데탕트(détente, 국제간의 긴장 완화) : 1975년 말 경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故 마거릿 대처 여사가 보수당 당수로 선출되었을 시기의 세계정세 분위기를 이르는 말.

2)선량 : 법률용어, '국회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

*밀레니엄 프로젝트: 다양한 나라의 수도에서 매년 다르게 발표하고 있으므로 '미국워싱턴'을 뺐니다.



▲이번 달 10일(수) 한국의 역할(Korea's Role in Asia) 강연 후 청강자들과 기념 촬영을 가졌다.